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8. 14.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2024년 장학금 지급 시행

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원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추천 바랍니다.

1. 목적

- 1)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배려
- 2)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젊은 인재 발굴

2. 지급 방법

- 1) 인원 : 8~10명
- 2) 금액 : 1인당 100만원
- 3) 지급명의 : 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장

3. 자격 요건

- 1) 협회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 협회평생회원 가입예정자도 가능
- 2) 산업보건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5 이상(박사 풀타임 가능)
- 3) 산업보건(위생)업무종사자

4. 추천자(기업 & 기관)

- 1) 협회 실행임원(회장, 이사, 감사), 평생회원
- 2)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회장
- 3) 발전기금운영위원장 및 발전기금운영위원
* 선정 및 평가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5. 서류 및 기한

- 1) 학교, 직장의 재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수혜자 확정 후 개별연락예정임)
- 2) 제출기한 2024. 9. 30(월)까지

6. 기타사항

- 1) 추천자가 취합되면 세부 진행일정 별도 수립예정임.

정부·국회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안내

제 8차 일환경건강포럼 개최

□ 사업목적

○ (재)일환경건강센터에서는 노동자와 일터의 안전·건강에 대한 다양한 현안 대응과 더불어 노동의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노동안전보건 의제들에 대한 모색과 전망을 함께 나누고자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일환경건강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음.

□ 사업계획(안)

- 일 시 : 2024. 8. 27(화). 10:00 ~ 12:30
- 장 소 : 서울근로자건강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동 213호)
- 신청방법 : 구글폼 접수

<https://forms.gle/R9KEjejGSeNRQ5Gw8>(접수자에 PDF 파일 자료집 발송)

- 주관기관 : (재)일환경건강센터
- 개최방식 : 현장 참여(오프라인), (발표자가 동의하는 경우)유튜브 녹화 송출
- 대 상 : 안전보건 유관단체 및 학회, 안전보건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노동자와 일터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포럼 내용

- 안전보건교육, 서명이 아니라 교훈을 남겨야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화재 사고, 인명피해 막는 안전관리가 최우선

- 화재·폭발 예방 우수사례 확산방안 강구, 8월 중 대책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1일(목)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단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비트로셀에서 과거 두 차례 화재(‘15년, ‘17년)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월 말부터 전지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개선토록 하면서, ‘소화설비, 경보·대피 설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8월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898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및 특별 감독 결과 관련 브리핑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이정식입니다.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주요 내용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별 감독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국 절차부터 숙식과 같은 생활편의,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는 유가족과 1대 1로 연계한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원해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유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1분의 유가족께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2분 유가족에 대한 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하 생략-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10년 만에 인상하여 안전투자 확대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스마트폰 앱은 11월까지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24.8.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39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38

안전보건공단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40

주간 사망사고 속보

- [7/29, 충북 청주시] 고소작업대가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지며 작업자가 떨어짐
- [7/30, 전북 군산시] 폐지묶음을 해체하던 중 폐지묶음이 무너지며 깔림
- [7/30, 전북 군산시] 콘크리트 표면 가공작업 중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짐
- [7/31, 경남 김해시] 콘크리트 파일 운반 중 파일이 굴러 떨어져 인근 작업자 맞음
- [7/31, 서울 금천구] 건물 외벽 청소를 위해 달비계 작업 중 비 중 지면으로 떨어짐
- [7/31, 전남 순천시] 아스팔트 유착제 도포작업 중 인근에서 후진하는 콤비롤러 뒷바퀴에 깔림
- [8/1, 전북 부안군]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
- [8/2, 경북 구미시] 지붕재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짐
- [8/3, 서울 은평구] 실외기실 사춤작업 중 떨어짐
- [7/15, 전남 광양시] 이동식 비계에서 내려오다 떨어짐
- [8/1, 전남 장성군] 핸드드릴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누전되어 감전됨
- [8/1, 전남 순천시] 인양 중이던 거푸집이 떨어지며 맞음
- [8/1, 경기 평택시] 배관 연결 작업 중 떨어지는 배관에 맞음
- [8/2, 경기 시흥시] 볼트 체결 작업 후 철골 위에서 떨어짐
- [8/2, 인천 남동구] 차량 점검을 위해 적재함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짐
- [8/7, 경기 안성시] 달비계를 타고 작업 중 떨어짐
- [8/8, 서울 강북구] 작업 중인 굴착기의 버킷이 떨어져 맞음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금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으로,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본사 및 운수·창고업 대상으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5144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외국인 근로자 “안전퀴즈왕” 뽑는다

- 외국인 안전문화 확산 목적의 퀴즈대회 ... 공단 경남·경기·부산 본부에서 개최
- 고층상담,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부스 설치·운영, 한국문화 공유의 시간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이하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산업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단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지역별 업종에 특화된 외국인 안전 퀴즈대회이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지역이며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단 경남지역본부(8월 18일, 마산 실내체육관), 경기지역본부(8월 28일, 용인시 실내체육관), 부산광역본부(9월 5일, 삼성중공업 실내체육관)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5153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은 폭염으로 부터 노동자를 지킬 수 있나?

매년 반복되는 야외작업자 온열질환 우려

매년 폭염기가 되면, 야외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반복됩니다. 그 만큼 우리는 발전하고 있을까요?

먼저 문제의 규모를 살펴봅시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총 147건(사망 22건)**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던 2018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31건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7.6%(70건), 제조업 15.0%(22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2.2%(18건), 음식·숙박업 등 기타 사업장 6.8%(10건) 순이었습니다. 사망자수는 건설업이 15건(68.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 속 노동'에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47건·사망사고 22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실외발생이 79.6%

산재요양 승인 자료는 후향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기반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온열질환자수는 4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4,526명으로 10배 가량 많았습니다. **폭염일수가 증가할수록 온열질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온열질환의 79.6%가 실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폭염 속 야외작업자의 건강 문제는 앞으로 산업보건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의 정비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표 2023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95/>

이불화 암모늄 중독사건

불행한 가정과 위험한 사업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리나>의 도입부입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블론스키의 집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사업을 통하여 접하게 된 한 화학물질 중독 사건 때문에, 이 구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어를 조금 바꾼다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이 처한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위험한 사업장은 모두 **제각각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화학물질 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모습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는 무한하고,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작업환경,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노출 경로와 노출 정도 역시 전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위험한 사업장이 안고 있는 모두 **제각각의 위험**, 특히 화학물질 중독에 대한 수많은 위험을 얼마나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종이컵 유독물질 사건, 눈 앞의 불행조차 보지 못하다

지금부터 소개할 화학물질 중독 사건을 보면, 산안법과 중처법이 위험을 찾아내기는 커녕 눈 앞의 불행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성 뇌달걀 의식불명... 동료 직원 과실 결론](#)
 “아내 식물인간됐다”,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일환경건강센터의 무모한 도전 기\] 사람 목숨 살리는 MSDS 스티커 한 장의 힘](#)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98/>